

#1 투자 방법 차이

펀드에 투자 하려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거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펀드다모아 페이지에서 비교 검색을 한 후 가입합니다. 은행에서 추천을 받아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때 은행은 중간 판매자일 뿐 최종 종착지는 증권사입니다.

ETF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 투자는 증권거래소에서 본인이 HTS나 MTS를 통해서 직접 합니다.

펀드는 간접투자이지만 ETF는 직접투자입니다.

#2 매입·매도(환매) 방식 차이

투자 방법의 차이는 매입·매도(펀드는 환매) 방식의 차이로 연결됩니다.

펀드는 일종의 간접 투사이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환매를 할 때 실제로 펀드에 포함된 주식·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주체는 펀드 운용회사(주로 증권사)입니다.

이에반해 ETF는 본인이 직접 매입·매도를 합니다. 또한 펀드와는 달리 지정가 주문, 손절매 주문도 가능하고 미수·신용거래도 가능합니다.

#3 매입 매도 시점 차이

펀드는 실시간 매매가 불가하다.



펀드도 ETF도 매입·매도의 기준 가격은 순자산가치(이하 NAV)입니다. 차이는 펀드는 하루에 한 번만 NAV가 계산되지만, ETF는 하루에도 여러번 NAV(정확히는 추정 NAV)가 계산됩니다.

이 차이는 의미심장한데요, ETF는 여러번 NAV가 계산되는만큼 매입 또는 매도 하는 시점의 시장가격 그대로 매입 또는 매도를 하게 되지만, 펀드는 "증권 시장이 마감된 후에 계산되는 NAV를 기준으로 매입 또는 매도(환매)하게 됩니다.

↑ 당일 종가를 기준

예를 들어, 오전에 전반적으로 주식이 상승을 했지만 오후에는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오전에 ETF를 팔았다면 오른 가격 그대로 매도 할 수 있지만, 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.

오전에 주식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며 주식형 펀드를 환매했다라도, 기준이 되는 가격은 당일 종가(경우에 따라서는 익일 종가)이기 때문에 오전에 상승했지만 오후에 상승한 폭을 초과하여 하락했다면 실제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.

#4 매도·환매 대금이 입금되는 시기 차이

펀드를 환매하거나 ETF를 매도했을 때 환매 대금이나 매도 대금이 바로 내 계좌에 입금되지는 않습니다. 펀드나 ETF 모두 바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, 입금되는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.

ETF를 매도했을 경우는 주식의 매도했을 경우와 같습니다. 매도한 날로부터 두 번째 영업일에 입금됩니다.

펀드는 증권 시장 개장 중에 환매한 경우 환매한 날로부터 세 번째 영업일에 장 마감 후에 환매한 경우는 네 번째 영업일에 입금됩니다. 모든 펀드가 다 이런 것은 아니고 펀드에 따라 다르지만, 다르더라도 이보다 더 빨리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늦게 입금됩니다.

펀드를 환매한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되는 시기는 ETF를 매도한 돈이 입금되는 시기보다 통상 1~2일 늦습니다.

- ETF는 특정 주가지수에 포함된 모든 주식을 쥘해진 비율에 맞춰 구입하는 것이다.
- 주식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선택한 몇 개의 주식만 구입하는 것이다.